

현대자동차지부, 새로운 투쟁 전술로 사측 압박

사업부 순환 파업·불법 촉탁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연내타결...5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

“새로운 투쟁 전술로 사측을 압박해 연내타결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12월 5일을 기점으로 2017년 임단협 연내타결을 위해 새로운 투쟁 전술로 무장하고 회사 압박에 나섰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밝힌 새로운 투쟁 전술은 ▲사업부 순환 파업 ▲불법 촉탁직 정규직화 투쟁이다.

지부는 연관공장까지 가동을 중단시켜 조합원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사측에게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업부 순환파업 전술을 채택했다.

지부는 합법 쟁의 기간 중 정규직 공정에 촉탁직과 평일 아르바이트, 비조합원 등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투쟁 전술을 병행한다. 지부가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인원 부족으로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전술이다. 인력이 부족한 공정은 비우고, 조합원은 자기 공정만 사수한다. 지부는 사측이 가동 중단에 불법으로 도발하면 보복파업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밝힌 불법 촉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확장 정책을 추진하던 박근혜 정권의 노동적폐



청산투쟁이며,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사회 분위기에 부합한다.

지부는 불법 파견과 불법 촉탁직 정규직화 투쟁이 ▲시대 사명이고 ▲대공장 노동조합의 사회 책무를 다하는 길이며 ▲대공장 노동조합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 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당연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현대자동차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위반하는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조합원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10년 사이 2만 명이 정년퇴직하고 정규직 공정은 촉탁직으로 채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30-9차 중앙쟁대위 투쟁지침에 따라 12월 5일 13시

30분부터 ‘2017년 임단협 승리와 불법 촉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14시 울산공장 열사광장에서 사업부별 깃발을 앞세우고 참석한 1만여 조합원과 함께 ‘2017년 투쟁승리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추

운 날씨에도 많은 조합원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다” 라면서 “4월 20일 시작한 2017년 임단협이 12월에 접어들었지만, 대화로 타결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12월 5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라고 선포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새로운 투쟁 전술로 회사를 압박해 연내타결을 쟁취하겠다” 라며 “조합원 동지들은 중앙쟁대위 지침을 현장에서 곳곳하게 사수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회사의 요청으로 결의대회 후 36차 본 교섭을 열었다. 현대자동차는 지부의 일괄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의 양보만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날 36차 본 교섭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임금, 성과급,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손해배상철회 등 쟁점 사항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 더 이상 줄라멜 허리띠도, 양보안도 없다 ”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 “고통전가식 구조조정 용납 못해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2월1일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 임금삭감 반대, 인원감축 반대, 비정규직 양산 반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결의대회에 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5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며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현석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 국내공장 순이익이 7년간 3,800억 원인데, 중국공장이 7년간 3,6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우리 돈 뺏어다 중국에 쏟아 박고 또 구조조정 한다고 한다”라며 “ 더이상 줄라멜 허리띠도 양보안도 없다. 단 한푼도 10원짜리 하나도 채권단에게 양보할 생각 없다. 지부는 12월15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자

피땀으로 워크아웃 졸업했더니 다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난리다. 배후에 산업은행이 있다”라며 “ 산업은행장이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를 정리하고 하겠다는 말이다. 금속노조는 동지들의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격려했다.

조합원들은 금호타이어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은, 과도한 해외공장 건설과 중국공장이 내고 있는 적자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경영진의 경영실패가 금호타이어 위기의 원인을 분명히 했다.

조삼수 금호타이어지회장은 “ 우량기업 금호타이어가 잘못된 경영과 산업은행, 채권단의 잘못으로 10년전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금호타이어를 온전하게 돌

려놓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라며 “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된 경영으로 목숨을 잃고 임금과 복지가 축소되는 일이 없게 앞장 서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박연수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장은 “ 정규직, 비정규직 할거 없이 7년간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뼈빠지게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또 다시 고통전가로 돌아왔다”라며 “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감행하면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지부 소속 지회장들은 무대에 나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투쟁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모든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의 뜻을 각자 리본에 적어 산업은행 광주지점의 울타리에 묶으며 대회를 마무리했다.